

경제적 어려움, 대처행동, 가족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 범 준[†]

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박 영 속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전 영 민

한국음주문화연구소
KARF병원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부 524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대처행동, 가족간 의사소통이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신건강지표로는 삶에 대한 만족도, 우울, 불안, 그리고 가족 정신건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주부들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했으며 가족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간의 불안과 우울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 수준', '남편의 건강 상태',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그리고 '본인의 실직을 걱정하는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우울에는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의 실직에 대한 걱정', '남편의 건강상태', '남편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정의 경제 위기 의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불안의 경우에는 '본인의 실직에 대한 걱정', '가정 경제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의 건강상태'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가족 정신건강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정도', '가정 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과의 의사소통', '남편의 건강상태' 및 '계획적 지출행동'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가정 경제적 형편, 경제적 대처행동, 그리고 가족의 의사소통이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주부 정신건강, 경제적 어려움, 대처행동, 의사소통

[†] 교신저자 : 김범준,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120-749)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 kimbj@yonsei.ac.kr

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대우교수 겸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전문연구원임.

정신건강은 정신의 질병유무를 알아내기 위한 정신 병리학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근래에는 정상적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임규혁, 1996).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에 걸리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well-being)”를 말한다. 신체적인 면에서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처럼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의미한다. 예컨대, 현재 질병에 걸려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건강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정신위생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는 “정신 건강이란 정신적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는 모든 종류의 개인적·사회적 적응을 포함하여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있는 통합된 성격발달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그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같은 경쟁에서의 실패, 좌절갈등을 경험한 현대인은 이전 사회와는 비교될 수 없는 심리적 갈등과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다. 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고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날로 소원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약 25%가 넘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 실제로 적응상의 문제가 정신과적 진단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이훈구 등, 2003).

우리사회의 정신건강문제를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수적 증가의 측면이 아닌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의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WHO와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사망과 질병에 의한 장애를 동시에 감안한 질병부담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에 의한 순위를 구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부담이 가장 큰 질병이 1990년에는 폐렴, 설사, 출산과 관련된 질병, 우울증 순이었으나 2020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우울증, 교통사고, 뇌혈관 질환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질병부담의 양상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202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전체 질병부담의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이영문, 1999; WHO, 1997). 특히 사망에 의한 부담을 제외하고 질병에 의한 장애만을 보았을 때, 1990년 세계 10대 장애요인을 보면, 우울증, 알코올 남용, 조울증,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이 5개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은 단독으로 세계 전체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1/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부담은 스트레스의 증가와 정신적 좌절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추론

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IMF체제를 경험했던 태국은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신질환자가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동우, 1997).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앞으로 우리경제가 일본과 같이 쉽게 그 불황의 늪을 헤쳐 나가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불안, 우울 등의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이 같은 심리적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것처럼 한 가설이기는 하지만, 정신분열증에 있어서 도파민 가설과 같은 기질적 요인이라거나, 가족력을 중심으로 한 유전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죽음, 상실, 실패, 가족문제, 인터넷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 중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관심의 중심에 서있는 것들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지난 40여 년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실업률의 하향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 신규채용감소 및 기업의 부도·퇴출 등으로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 2.4%에 지나지 않던 실업률은 IMF사태가 발생했던 1997년을 지나 1998에는 6.8%로 급증했으며 이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그 불안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백진아, 2001). 예를 들어 실직과 같은 경제적 위기는 상실감, 우울, 자살, 정신질환,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김유순, 이영분, 1998). 예를 들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경제위기를 경험한 실직자의 경우, 조사자의 86.6%가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초조와 불안(68.5%), 불면증, 우울증, 대인관계 기피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1998).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 의하면, IMF 상황에서 고등학생과 주부 응답자의 72% 이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적하여 경제상황이 스트레스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인간관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처행동으로는 자기 조절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절약, 적극적 문제해결, 회피와 같이 정서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주어진 상황이 경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경제행동과 관련된 대처행동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게 하며,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Dooley와 Catalano(1980)가 개관한 15개 연구 중에 14개 연구에서, 경제침체 현상이 정신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즉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할수록, 정신과 입원률과 자살률이 높아졌다(이훈구, 이해주, 1998; 부록1참고).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경제적 위기가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수준을 결정하는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유발함을 선

행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Liem과 Liem(1988)의 연구에서 취업가정에 비해 실직 가정의 이혼율 및 별거율이 3배 반 정도나 되었다. 그리고 Broman, Hamilton 및 Hoffman(1990)의 연구에서는 실직 근로자는 가족과 갈등 및 긴장수준이 증가하고 자녀를 때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기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위기가 주는 전반적 영향을 말한다. 즉, 객관적 측면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한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외부의 경제적 위기를 개인이 지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협의적으로 보면 경제적 위기란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IMF 상황처럼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외부적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위협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그것을 개인이 위기로 보는가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는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한 스트레스로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는 어느 정도의 예측되고 규범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발달적 스트레스와 달리 가족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자원이 없이 닥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는 가족에게 있어 부정적인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이미숙 등, 2000).

예를 들어, IMF관리체제 동안 발표되었던 각종 조사에서 보면, 경제위기는 다른 어떤 사회적 변화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가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IMF이후의 소비 의식 및 행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2%가 외식비와 식료품비 등을 아껴 생활비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앙일보, 1998. 3. 4), 통계청이 발표한 1998년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IMF구제금융 관리체제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지난 6개월간 13.7%나 감소하여 중산층의 경제 기반이 허물어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1998. 6. 12). 그런데 이는 생계를 맡고 있는 가장이 직장을 잃지 않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여서 실제로 실직자 가정을 포함한 도시 중산층의 소득 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객관적 및 주관적 생활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협의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위기는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지각은 개인이나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즉,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인 지표가 더 결정적이라는 데에는 학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보선, 임정빈, 1998; 고정자, 1998; Voydanoff & Donelly, 1990). 또한 스트레스생활사건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최연실, 1996)는 연구는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스트레스 지각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객관적인 생활환경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주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삶의 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과정은 직접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채정숙 등, 1997).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이다. 부부가 중심인 핵가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족생활의 일부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부부관계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정자, 1998; Windle & Dumenci, 1997).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삶의 질이나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실직을 들 수가 있다. 현대와 같이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보면, 부부 각각의 실직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실업의 경우, 가족부양과 가사분담을 둘러싼 부부의 역할과 권력관계를 재편함으로써 부부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나아가 가족해체 고려도를 높일 수 있다. 남편이 실직한 경우,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생계를 꾸려가지만, 남편이 효과적으로 가사노동을 대체하지 못할 때 부부관계가 악화된다. 취업한 아내를 대신해 가사노동과 더불어 자녀양육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내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 가족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관계는 소원하게 되는 것이다(김승권 등, 1998; 박중헌, 1999; Kessler & McRae, 1982). 또한 경제적 위기는 정신건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업은 소득의 상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소의 씁쓸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빈곤에 따른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Elder & Caspi, 1988). 국내연구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실업자의 정신건강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한우, 1999; 이훈구, 이혜주, 1998; 임인숙, 안병철, 2000).

부부관계와 개인이나 가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한 요소는 부부간이나 가족간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교환된다. 의사소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두 사람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부 관계이다. 부부는 인간이 경험하는 대인 관계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 의사소통은 다른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감정을 적절히 전달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김진희, 김경신, 1998). Johnson (1974)은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양자간 차이점을 해결하려는 협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로의 입장과 의도에 관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함께 추론하고 협상하며,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만이 해결책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부부는 의사소통의 도구적 기능과 규범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갈등해소를

시도한다. 가령 한 배우자가 그의 목표를 기만과 강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달성한다면, 목표 달성에는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의사소통의 도구적 기능은 충족시키겠지만 다른 배우자의 욕구나 관심을 배려한다는 규범적 기능은 무시하는 것이다(Cupach, 1982; Thomas, 1994). 따라서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는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이해하며 동등한 부부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가족 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Noller와 Pitzpatrick(1990)은 삶의 만족, 특히 결혼만족을 위하여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들은 불만족스러운 부부들보다 상대편 배우자들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더 정확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들은 불행한 부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 혹은 양쪽 배우자 모두 직장의 유무와 무관하게 부부들이 상대편 배우자에게 보고하는 시간의 양이 결혼 생활 만족도와 확실히 관련되어 있다(Vangelisti & Banski, 1993). 부부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부부간의 대화의 양이 많지 않으며, 부부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어떤 문제든지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Thomas(1977)는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라고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정신건강문제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

치는 직접적인 병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비중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경제적 위기, 대처행동,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정신건강 측면을 불안과 우울과 더불어, 만족도와 가족 정신건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것은 가족에서 주부가 차지하는 위치가 오늘날 더 없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정 경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 법

조사 대상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있는 중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6개 중학교의 6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학생의 어머니께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을 수거하였다. 수거된 사례의 수는 524명이었으나 응답이 부실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512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은 IMF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인 1997년 5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구성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개인적 수준의 정신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수준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개인수준의 정신건강으로는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개인적 정신건강의 대표적 형태인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였다. 우울과 불안 척도는 김광일 등(1978)의 간이정신건강검사인 SCL-90척도 중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각각 5개 문항씩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차원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료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의 값은 우울의 경우 .88, 불안의 경우 .85로 나타났다. 가족 건강성은 이동원 등(1998)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Bigner(1993)의 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 14개 문항 가운데 9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가족 분위기에 관련된 항목을 하나 추가한 것이다. 이 척도는 모두 10개 문항으로 ‘우리가족은 무슨 말이든 서로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어준다’, ‘우리 가족은 여가 활동을 대부분 같이 한다’, ‘우리 집은 화기에 애하고 생기가 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와 ‘아니다’의 차원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 건강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2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주부 등의 생활에 해당하는 ‘가정생활’, ‘본인의 직장생활’, ‘남편의 직장생활’, ‘여가생활’, ‘자녀의 학업성적’, ‘생활전반’의 6개 영역에 대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주 불만이다’에서 ‘아주 만족한다’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다. 삶의 만족

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1이었다.

가정경제위기, 대처행동, 의사소통

가정경제위기, 대처행동,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들을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응답자에게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하지 않고 학생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설문지를 응답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문항이 간단한 형태를 취하도록 작성하였다. 먼저 가정경제위기와 관련된 문항은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현재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묻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것을 얼마나 위기로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대처행동은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행동만을 질문하였다. 즉,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얼마나 지출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계획적 지출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 변수인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와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기타 항목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항목은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생활수준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기타 항목들은 남편의 실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본인의 실직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남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남편이나 본인의 실직에 대한 생각은 ‘자주 있었다(1)’에서 ‘전혀 없었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으며, 남편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은 ‘매우 좋다(1)’에서 ‘매우 나쁘다(5)’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주로 *t*-검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2.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연령을 보면, 최연소자의 연령은 33세였으며, 최고령자는 63세였다. 이중 30대는 29.5%(151명), 40대가 65.6%(336명), 50대가 2.9%(15명), 60대가 0.4%(2명)이었고, 8명(1.6%)은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력을 보면, 중졸 이하가 21.7%(111명), 고졸이 50.6%(259명), 전문대졸이 4.3%(22명), 대졸이 20.5%(105명),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1.2%(6명)이었다. 응답자의 종교분포는 개신교 29.5%(151명), 불교 29.5%(151명), 유교 0.8%(4명), 천주교 15.6%(80명), 기타 3.9%(20명), 무교 18.6%(95명), 그리고 무응답자가 11명(2.1%)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직업이 있다고(농업, 기능숙련공, 일반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등) 응답한 사람이 47.9%(229명), 가정주부라고 응답한 사람이 44.3%(227)명, 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3%(17명), 기타에 해당되는 사람이 4.5%(23명)이었으며,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이 16명(3.1%)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생활수준은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사람이 0.8%(4명), ‘비교적 잘 산다’고 응답한 사람이 15.4%(79명), ‘평균정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59.6%(305명), ‘조금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9%(102명), ‘아주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16명)이었으며, 무응답자는 6명(1.2%)이었다.

가정경제위기, 대처행동, 의사소통과 정신건강

가정경제위기 지각과 정신건강

먼저,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한 삶의 만족도, 불안, 우울, 그리고 가족정신건강의 전체평균점수는 각각 2.67(0.62), 2.24(0.74), 2.34(0.80), 그리고 13.33(2.33)이었다.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불안, 우울, 그리고 가족정신건강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재 어려워, 평균을 가지고 척도상의 중간값(삶의 만족도, 불안, 우울은 3점; 가족정신건강은 15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응답자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좋은 편으로, $t(356)=-10.00, p<.001$, 낮은 불안과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불안, $t(477)=-22.62, p<.001$; 우울, $t(482)=-18.12, p<.001$. 그리고 가족 정신건강도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t(466)=-15.51, p<.001$,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정신건강이 좋다고 할 수 있었다.

가정경제위기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알아보았다. 하나는 자신의 가정형편에 대한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가정형편을 위기로 보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r = -.44, p < .001$ 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자신들의 가정경제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두 변인 중 먼저 가정경제형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정신건강 지표상의 평균점수들을 *t*-검증을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정경제형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0.8%(4명)가 ‘아주 좋다’, 30.7%(154명)가 ‘비교적 좋은 편이다’, 57.4%(288명)

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11.2%(56명)가 ‘아주 좋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비교적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가정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 지표들 상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삶의 만족도의 경우, 가정 경제형편이 좋은 집단이 가정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03) = -6.71, p < .001$. 또한 가정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정 경제형편이 좋은 집단이 덜 우울해 하고 덜 불안해하며, 가족 정신건강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t(419) = -4.86, p < .001$; 불안, $t(415) = -3.73, p < .001$; 가족 정신건강, $t(404) = -3.24, p < .001$.

또 다른 각도에서 가정경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기로 지각하는가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정 경제를 위기로 지각하는 집단과 위기로 지각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

단간의 정신건강 지표상의 평균점수들을 t -검증을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가정경제형편에 대한 위기의식은 ‘많이 느낀다’ 30.6%(152명), ‘다소 느낀다’ 59.2%(294명), ‘별로 느끼지 않는다’ 9.3%(46명), ‘전혀 느끼지 않는다’ 1.0%(5명)로 나타났다. 이중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이 희소하여,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집단과 ‘별로 느끼지 않는다’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삶의 만족도의 경우, 가정경제형편을 위기라고 지각한 집단에 비해 위기라고 지각하지 않은 집단이 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37) = 2.37, p < .05$. 그리고 위기라고 지각한 집단에 비해 위기라고 지각하지 않은 집단이 덜 우울해 하고 덜 불안해하였다, 우울, $t(183) = 3.93, p < .001$; 불안, $t(180) = 3.51, p < .001$. 그리고 가족정신건강의 경우에는 위기를 지각한 집단과 위기로 지각하지 않은 집단간에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족의 정신건강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적 형편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과 달리 그것을 위기로 지각하는 것은 삶의 만족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적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표 1. 경제형편 판단에 따른 정신건강 지표들의 평균차이 비교

	중 음	나쁨	t 값
	M(SD) / n	M(SD) / n	
삶의 만족도	2.33(0.54) / 109	2.78(0.57) / 196	-6.71***
우울	2.25(0.72) / 148	2.42(0.77) / 273	-4.86***
불안	2.01(0.64) / 151	2.27(0.71) / 266	-3.73***
가족정신건강	12.73(2.23) / 140	13.49(2.26) / 266	-3.24***

주. *** $p < 0.001$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낮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임.

우울, 불안, 가족정신건강은 평균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임.

표 2. 가정경제 위기지가각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지표들의 평균차이 비교

	지각함	지각안함	t 값
	M(SD) / n	M(SD) / n	
삶의 만족도	2.92(0.56) / 114	2.61(0.73) / 25	2.37*
우울	2.63(0.81) / 140	2.08(0.83) / 45	3.93***
불안	2.52(0.80) / 138	2.04(0.75) / 44	3.51***
가족정신건강	13.87(2.52) / 139	13.50(2.95) / 44	0.81

주. * $p < 0.5$, *** $p < 0.001$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낮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임.

우울, 불안, 가족정신건강은 평균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임.

만,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개인이 어떤 현상을 위기로 보는 것은 개인의 지각이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대처행동과 정신건강

다음으로 경제행동과 관련된 대처행동에 따라 대처행동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정신건강지표상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대처행동여부는 ‘계획을 세워 가정에서 지출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32.5%(163명)가 ‘모든 물건을 계획을 세워 구입한다’고 대답하였고, 51.4%(258명)가 ‘큰 물건만 계획을 세워 구입한다’고 하였다. ‘계획 없이 구입할 때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13.9%(70명)이었으며, ‘계획을 세워 구입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2%(11명)였다. 이 같은 응답 중 ‘모든 물건을 계획을 세워 구입한다’고 응답한 집단을 계획적 지출을 하는 집단으로, ‘계획 없이 구입할 때가 많다’와 ‘계획을 세워 구입한 적이 없다’

고 응답한 사람을 비계획적 지출집단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처리하였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삶의 만족도의 경우, 계획적 지출을 하는 집단이 비계획적으로 지출을 하는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78)=-2.09, p<.05$. 그리고 가족 정신건강의 경우에는 계획적 지출을 하는 집단에 비해 비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집단이 가족 정신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224)=-3.62, p<.001$. 그렇지만, 불안과 우울에 있어서는 계획적 지출을 하는 집단에 비해 계획적 지출을 하지 집단이 약간 우울하고 불안하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 지출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의 경우 97.8%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집단과의 평균차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가족간 의사소통과 정신건강

마지막으로 가족간 의사소통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간 의사소통을

표 3. 계획적 지출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지표들의 평균차이 비교

	계획적 지출	비계획적 지출	t 값
	M(SD) / n	M(SD) / n	
삶의 만족도	2.63(0.63) / 117	2.83(0.54) / 63	-2.09*
우울	2.31(0.85) / 157	2.41(0.76) / 79	-0.92
불안	2.26(0.85) / 156	2.27(0.69) / 76	-0.90
가족정신건강	12.83(2.10) / 151	13.99(2.53) / 75	-3.61***

주. * $p < 0.5$, *** $p < 0.001$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낮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임.

우울, 불안, 가족정신건강은 평균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임.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본 결과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정신건강상의 점수를 t -검증을 통해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부간 의사소통의 정도는 ‘집안의 애로사항을 남편과 상의하곤 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중 26.0%(132명)가 ‘빠짐없이 한다’고 대답하였고, 52.6%(267명)가 ‘대부분 하는 편이다’고 하였다. ‘반쯤하고 반쯤은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5.6%(79명)이었고, ‘거의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5%(23명), ‘전혀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4%(7명)였다. 이에 반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자주 한다’가 43.1%(220), ‘가끔 한다’가 48.9%, ‘거의 안한다’가 7.2%(37명), 그리고 ‘전혀 안한다’가 0.8%(4명)였다. 부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중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더 주부들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경우,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빈도가 너무 적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만 분석을 시도 하였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응답 중 ‘빠짐없이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많은 집단으로 ‘반쯤하고 반쯤은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 ‘거의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 그리고 ‘전혀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부부간 의사소통이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이 많은 집단이 삶에 더 만족했으며, $t(160)=-4.53$, $p<.001$,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많은 집단에 비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은 집단이 더 우울해 하였다, $t(226)=-2.78$, $p<.01$. 그리고 가족정신건강 역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189.77)=-5.40$, $p<.001$. 불안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적은 집단에 비해 많은 집단이 덜 불안해하는 경향성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227)=-1.87$, $p=.063$. 이 같은 결과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신건강 특히, 우울한 마음을 덜어주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앞의 결과들과 비교할 때, 불안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 즉 경제적 형편이나 그것을 위

표 4. 부부 의사소통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지표들의 평균차이 비교

	많음	적음	t 값
	M(SD) / n	M(SD) / n	
삶의 만족도	2.53(0.66) / 84	2.98(0.60) / 78	-4.53***
우울	2.26(0.79) / 125	2.57(0.89) / 103	-2.78**
불안	2.18(0.76) / 126	2.38(0.83) / 103	-1.87
가족정신건강	12.67(2.10) / 120	14.38(2.50) / 98	-5.40***

주. * $p < 0.5$, ** $p < 0.01$, *** $p < 0.001$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낮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임.

우울, 불안, 가족정신건강은 평균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임.

기로 지각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안의 제거는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예언변인으로 사용될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결과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하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른 하나는 SPSS 중다회귀분석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중공선성 검증의 한 방법인 Tolerance 값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상관관계분석의 경우, 예언변수로 사용될 12가지의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수는 그 범위가 -.440에서 .506 사이에 분포하였다(부록 1 참조). 이 중,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과 ‘가정 경제 위기 의식’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440($p < .001$)이었고¹⁾, ‘교육수준’과 ‘생활수준’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319($p < .001$)²⁾이었다. 그리고 ‘생활수

준’과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의 경우 상관관계 계수가 .473($p < .001$), ‘남편의 실직에 대한 걱정 정도’와 ‘본인의 실직에 대한 걱정 정도’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506($p < .001$)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다른 상관관계는 .300이하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관계 계수가 .506과 같은 경우,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SPSS의 회귀분석에서 제공하고 있는 Tolerance 값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olerance 값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값이 0.1보다 적은 값을 가진 변수에 대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모든 중다회귀분석에서 모든 변수들의 값이 0.1보다 커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배제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결과 분석에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Tolerance 값은 아래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1)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수록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가정경제 위기의식, 계획적 지출행동, 계획적 지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남편의 실직 걱정정도, 본인의 실직 걱정정도, 남편의 건강 상태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경제적 수준’, ‘남편의 건강 상태’,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그리고 ‘본인의 실직을 걱정하는 정도’였다, $R^2 = .35$, $F(5,294) = 31.79$, $p < .001$.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건강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다고 판단할수록, 그리고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본인의 실직을 걱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와 같이,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가정경제 위기의식, 계획적 지출행동, 계획적 지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남편의 실직 걱정정도, 본인의 실직 걱정정도, 남편의 건강 상태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들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의 실직에 대한 걱정’, ‘남편의 건강상태’, ‘남편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정의 경제 위기 의식’이었다, $R^2 = .16$, $F(5, 342) = 13.26$, $p < .001$. 즉, 가정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남편의 실직을 더 많이 걱정할수록, 남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그리고 남편과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경제를 위기라고 느낄수록 더 우울하였다.

또 다른 정신건강 지표인 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가정경제 위기의식, 계획적 지출행동, 계획적 지

표 5.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수	β	R^2	R^2 변화	t 값	Tolerance
생활수준	.21	.18		3.84***	.739
남편의 건강 상태	.29	.28	.10	5.97***	.935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21	.32	.04	3.72***	.749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15	.33	.01	3.16**	.959
본인의 실직 걱정 ¹⁾	-.13	.35	.02	-2.74***	.945

주. ** $p < 0.01$, *** $p < 0.001$

1) 본인의 실직 걱정은 응답값이 적을수록 더 실직을 걱정하는 것을 나타냄으로 β 값이 - 라는 것은 본인의 실직을 걱정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표 6.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수	β	R^2	R^2 변화	t 값	Tolerance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19	.09		3.37***	.751
남편의 실직 걱정 ¹⁾	-.15	.12	.03	-2.88**	.930
남편의 건강상태	.13	.14	.02	2.46*	.928
남편과의 의사소통	.11	.15	.01	2.25*	.978
가정경제 위기의식	.12	.16	.01	-2.05*	.766

주. * $p < 0.5$, ** $p < 0.01$, *** $p < 0.001$

1) 남편의 실직 걱정은 응답값이 적을수록 더 실직을 걱정하는 것을 나타냄으로 β 값이 - 라는 것은 남편의 실직을 걱정할수록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함.

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남편의 실직 걱정정도, 본인의 실직 걱정정도, 남편의 건강상태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들의 불안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본인의 실직에 대한 걱정’, ‘가정 경제형편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남편의 건강상태’였다, $R^2 = .14$, $F(3, 341) = 18.51$, $p < .001$. 즉, 본인의 실직을 더 걱정할수록, 가정 형편을 좋지 않게 판단할수록, 그리고 남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가정경제 위기의식, 계획적 지출행동, 계획적 지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남편의 실직 걱정정도, 본인의 실직 걱정정도, 남편의 건강 상태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다른 정신건강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들의 가족정신건강 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정도’, ‘가정 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과의 의사소통’, ‘남편의

표 7.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수	β	R^2	R^2 변화	t 값	Tolerance
본인 실직의 걱정 ¹⁾	-.22	.07		-3.37***	.962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19	.12	.05	3.59***	.935
남편의 건강상태	.16	.14	.02	3.10**	.967

주. ** $p < 0.01$, *** $p < 0.001$

1) 본인의 실직 걱정은 응답값이 적을수록 더 실직을 걱정하는 것을 나타냄으로 β 값이 - 라는 것은 본인의 실직을 걱정할수록 더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8. 가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수	β	R^2	R^2 변화	t 값	Tolerance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21	.09		4.18***	.923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17	.13	.04	3.36***	.969
남편과의 의사소통	.15	.16	.03	2.98**	.928
남편의 건강상태	.15	.18	.02	2.94**	.940
계획적 지출행동	.11	.19	.01	2.08*	.955

주. * $p < 0.5$, ** $p < 0.01$, *** $p < 0.001$

건강상태’, 그리고 ‘계획적 지출행동’이었다, $R^2 = .19$, $F(5, 335) = 15.52$, $p < .001$. 즉,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역시 잘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남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역시, 계획적 지출이 이루어질수록 가족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강의 여러 지표들 모두에서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가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었다. 즉, 경제적 현실 상황이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에 비해 가족 정신건강의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이것은 가족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을 묻는 문항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자녀로 둔 주부 51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경제위기, 대처행동, 가족 의사소통 등의 변인들을 조사하고 이 변인들이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신건강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우울, 불안, 그리고 가족정신건강을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정경제형편이 좋은 경우에 비해 좋지 않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더 우울해 하며,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정신건강 역시 좋지 않았다. 한편, 가정경제를 위기로 지각하는 집단이 위기로 지각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더 우울해하며, 더 불안해했지만, 가족 정신건강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대처 행동여부는 삶의 만족도와 가족 정신건강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우울과 불안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와 우울, 그리고 가족 정신건강의 점수에는 평균차이를 유발했지만, 불안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정신건강 지표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각 정신건강지표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

른 변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는 ‘경제적 수준’, ‘남편의 건강 상태’, ‘가정 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그리고 ‘본인의 실적을 걱정하는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우울에는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의 실적에 대한 걱정’, ‘남편의 건강상태’, ‘남편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정의 경제 위기 의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의 경우에는 ‘본인의 실적에 대한 걱정’, ‘가정 경제형편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남편의 건강상태’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가족 정신건강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정도’, ‘가정 형편에 대한 판단’, ‘남편과의 의사소통’, ‘남편의 건강상태’, 그리고 ‘계획적 지출행동’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가정 경제형편, 경제적 대처행동, 그리고 가족의 의사소통이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 그리고 가족정신건강을 정신건강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4가지 지표로 주부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것은 개인의 전반적 삶, 가족과 관련된 삶을 평가하고 개인적 정신건강 부분 중 주부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울과 불안이라고 생각하여 그 지표로 사용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인적 삶의 만족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으며, 우울의 경우에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졌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불안은 자신의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삶의 만족도는

보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우울은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라는 직접적인 현실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불안은 주부 본인의 실적이라는 보다 직접적 사건에 대한 예견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볼 때 삶의 만족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반적 생활조건으로부터 영향 받는데 비해 우울, 특히 불안은 직접적 상황이나 사건,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차이 있는 정신건강의 지표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신건강요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었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이나 우울, 불안에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난 것에 비해, 가족정신건강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정 경제형편, 남편과 의사소통, 남편의 건강, 계획적 지출행동 등 다른 정신건강 지표들보다 보다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가족정신건강이라는 요인의 속성 상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정신건강지표 상에 중요한 예측변수로 작용한 것은 남편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의 역할과 힘이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을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적 정신건강이외에 가족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족의 정신건강에서 시사되는 점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비해 가족의 정신건강은 경제적 조건보다는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상호 관계조건이 보다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신건강과는 다르게 가족정신건강

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남편과의 의사소통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적 지출행동이 개인의 정신건강과는 차이 있는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가족환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시 경제 외적인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정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비해 경제적 변화와 같은 외적 자극에 영향을 보다 적게 받거나 느리게 받는 안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역으로 보면 가정의 정신건강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그만큼 가족의 정신건강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다 오랜 시간동안에 걸쳐서 정신건강이 형성된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이 외적 자극에 의해 보다 쉽게 변동적이라고 한다면 가족의 정신건강은 보다 안정적이어서 불안정한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제위기, 대처 행동, 그리고 가족 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정경제위기를 느끼는 집단과 느끼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었고, 대처행동의 경우에는 계획적 지출을 하는 집단과 비계획적 지출을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부부 의사소통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의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점수의 분포의 중앙치를 사용

하거나, 평균에서 일정하게 떨어져있는 값에 위치하는 집단군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응답자들의 응답에 의존하여 구분하였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한 것은 각 독립변수를 측정하는 항목이 단일 항목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순 집단 구분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 방법으로 집단구분을 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가정경제위기, 대처 행동, 그리고 가족 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초보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가정경제 위기의식, 계획적 지출행동, 계획적 지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남편과의 의사소통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남편의 실직 걱정정도, 본인의 실직 걱정정도, 남편의 건강 상태들이 삶의 만족도, 불안, 우울, 그리고 가족정신건강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였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수들을 생태적, 혹은 사회 환경적 요소, 사회적 대인적 요소(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가족간 의사소통), 개인지각이나 개인차와 같은 요소(예를 들어 대처행동), 그리고 그 외의 심리적 요소들과 같이 구분하여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

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탐색적 차원에서 주부정신건강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히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위계적 회귀분석이나 Lisrel을 이용한 분석과 같은 모델검증력을 가지는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하여 진일보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정신건강의 지표로 삶의 만족도, 불안, 우울, 그리고 가족정신건강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4개의 지표를 사용한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주부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도에서 본 연구자들은 각각의 지표에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들 지표 간에도 일정한 관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 정신건강 지표들과 가족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 정신건강과 가족의 정신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일방적으로 가족의 정신건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부모-자녀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정신건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구본용 등, 2002; 김현수, 김현실, 2001, 2002; 박영신, 김의철, 2000; Burt, Krueger, & McGue, 2003). 이에 비해 개인의 정신건강이 가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며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의 정신건강의 상호적 영향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의 정신건강에 관한 양방

적인 상호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혁명이후로 여권이 신장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미약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가정에서 여성 즉, 주부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자녀의 교육, 주거, 경제적 지출의 결정 등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결정할 때, 주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다. 즉, 경제적 상황과 주부들은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현대의 여성 특히 주부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주부들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넘어서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요인들이 주부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만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주부의 상당한 비율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주부,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일용직으로 일하는 주부, 재택근무를 하는 주부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주부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주부, 혹은 전문직, 기능직, 사무직 등 다양한 목적이나 직군에서 활동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근무형태나, 목적, 동기 등에 따라 어떤 요인들이

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자녀로 둔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그들의 연령대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시기로 대표적인 주부군에 속하기는 하지만, 주부를 결혼 초기, 중기, 그리고 노년의 주부로 구분해 본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부들을 조사하여, 결혼초기의 주부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노년의 주부들은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요인들이 정신건강의 해치거나 보호해주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시켜볼 때, 결혼초기보다는 중기에 더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노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집단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대비를 하지 않은 집단은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들은 IMF 사태가 발생하기 바로 전의 자료들이었다. 그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후퇴보다는 지속적인 성장만을 해왔기 때문에 몇 차례의 경제적 위기는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회 저변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8년여 세월이 지난 지금, 경제적 성장의 기조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록 IMF체제를 빠르게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업과 가계 빚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 요인들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가장들의 실직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많은 주부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

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주부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자료와의 비교를 시도하여 보다 보편적인 사실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보선, 임정빈 (199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 59-78.
- 고정자 (1998).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 163-178.
- 구분용, 신현숙, 유제민 (2000).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 35-57.
-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김광윤 (1978).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I. 신경정신의학연구, 17(4).
- 김승권 (1998).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요구와 1999년 실업대책.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이상헌, 양혜경 (1998). 여성실업자 및 실업자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순, 이영분 (1998). 실직자 가족을 위한 위기개입: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 3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김의철, 박영신 (1999).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 57-79.

- 김진희, 김경신 (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한 가정학회지, 36, 63-76.
- 김한우 (1999). 실직자의 심리적 경험: 주요사건의 효과와 대처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수, 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 40(2), 279-291.
- 김현수, 김현실 (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 - 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종현 (1999). 한국사회 중산층 가족의 가장 실업에 따른 적응과 갈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진아 (200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주의. 사회발전연구, 7, 27-50.
- 서동우 (1997). 하남시 정신보건사업보고서. 하남시.
- 이동원, 이근후, 박영숙 (1998). 도시 가족의 부부역할 갈등과 가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 1-33.
-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2000). 경제위기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 가정학회지, 38, 117-133.
- 이영문 (1999). 경제위기 상황과 정신건강의 함수. 사회비평, 19, 84-105.
- 이훈구, 이혜주 (1998). 한국실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 98년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805-818.
- 이훈구, 한종철, 정찬섭, 오경자, 한광희, 황상민, 김민식 (2003). 인간행동의 이해. 2판. 법문사
- 임규혁 (1996).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임인숙, 안병철 (2000). 경제위기가 가족해체 고려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2, 1-23.
- 조선일보 (1998). 3. 4. 일자.
- 중앙일보 (1998). 6. 12. 일자.
- 채정숙, 조희금, 박충선, 정영숙 (1997).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성. 대한 가정학회지, 35, 243-255.
- 최연실 (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igner, J. J. (1993). *Individual and family development: A life-sp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Broman, C. L., Hamilton, V. L., & Hoffman, W. S. (1990). Unemployment and its effects of families: Evidence from a plant closing stud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643-659.
- Burt. S. A., Krueger, R. F, McGue, M. (2003). Parent-child conflict and the comorbidity among childhood externalizing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5), 505-513.
- Cupach, W. R. (1982). *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hoice of international message strategies*(Report No. CS 503 150).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rts and Science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947)
- Dooley, D., & Catalano, R. (1980). Economic change as a cause of behavior disorder.

- Psychological Bulletin*, 87, 450-468.
- Elder, G. H. Jr.,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Issues*, 44, 25-46.
- Johnson, D. W. (1974). Communication and the inducement of cooperative behavior in conflict: A critical review. *Speech Monograph*, 41, 4-78.
- Kessler, R. C., McRae, J. A. Jr. (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22.
- Liem, R., & Liem, J. H. (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6.
- Noller, P., & Fitzpatrick, M. A. (199).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32-843.
- Thomas, E. J.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The Free Press.
- Thomas, K. W. (1994). Conflict and negotiation process in organizations. In M. D. Dunnette & L. H. Hough(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pp. 651-717).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Vangelisti, A. L., & Banski, E. G. (1993). Is the u-curve of marital satisfaction an illusion? A 40-year stud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0-239.
-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4.
- WHO (1997). *Consensus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Geneva.
- Windle, M., & Dumenci, L. (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 income couples: A multi-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5-634.

The effects of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copying behavior, and communication within family on mental health of housewives

Beom Jun Kim

**Kyongg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Young Sook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Young Min Chun

KARF Hospital

A survey of 524 housewives, residents of Seoul,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copying behavior, and communication on their mental health.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xiety, and family mental health were the indicators of the mental health in the study. Overall, the respon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mental health than the midpoint on the scale. However, they showed a little depression and anxiety.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conomic status, husband's health, judgment of family economic difficulties, communication with husband, and loss of own employ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family economic status, husband's employment loss, husband's health, communication with husband, and perception of family economic crisi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anxiety, loss of their own employment, judgment of family economic difficulties, and husband's health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inally, communication with children, judgment of family economic difficulties, communication with husband, husband's health, and planned expenditu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family mental health. In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copying behavior, and communication were important factors on mental health of housewives.

key words : mental health of housewives, economic difficulties, economic copying behavior, communication

부록: 주요 예언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변수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 연령	1.000											
a2 교육수준	.018	1.000										
a3 생활수준	-.001	-.319***	1.000									
a4 가정형편에 대한 판단	.028	-.238***	.473***	1.000								
a5 가정경제 위기의식	.027	.223***	-.287***	-.440***	1.000							
a6 계획적 지출행동	.044	.097*	.028	.007	.084	1.000						
a7 계획적 지출행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	.001	.076	.013	-.090*	.176***	.260***	1.000					
a8 남편과의 의사 소통	.032	-.003	.171***	.088	-.050	.135**	.190***	1.000				
a9 자녀와의 의사소통	-.026	-.019	.116***	.046	.034	.175***	.155***	.250***	1.000			
a10 남편의 실직걱정	.041	.118**	-.218***	-.160***	.208***	.048	.114*	.020	.047	1.000		
a11 본인의 실직 걱정정도	.075	.057	-.113*	-.184***	.150**	.075	.164**	.129**	.013	.506***	1.000	
a12 남편의 건강상태	.112*	-.069	.207***	.179***	-.074	.062	.091*	.079	.136**	-.170***	-.052	1.000

주. * $p < 0.5$, ** $p < 0.01$, *** $p < 0.001$